

Maison

30 ANNIVERSARY

marie claire

2024 MARCH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건축가 알레시아 가리발디가 만든
밀라노 주택

HOTEL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만든
호텔 리스트

SHOPPING

봄 데코레이션을 위한
추천 아이템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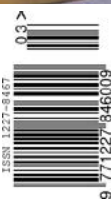
INTERIOR

글래드스톤 디렉터의 집
신경옥, 집으로부터
스탠딩 에그의 알토 하우스

PARIS DESIGN REPORT

2024 메종&오브제 이슈, 패브릭 축제 트렌드, 메르시 CEO 인터뷰

정가 9,000원





INNER HARMONIES

건축가 알레시아 가리발디는 끊임없이 여행하는 친구 비토리오를 위해 평온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연출했다. 19세기 밀라노 주택은 비토리오의 행복한 안식처가 되었다.

EDITOR 발레리 샤리에 Valerie Charier
PHOTOGRAPHER 베네딕트 드뤼몽 Benedicte Drummond
STYLIST 비르지니 뤼시-뒤보스크 Virginie Lucy-Duboscq



아시아의 숨결을 불어넣은 거실. 상하이에서 13년을 보낸 비토리오를 위해 알레시아는 벽지 '땀부 포레스트 Bamboo Forest'(미샤 Misha) 한 폭을 붙여 활기를 주었다. 벽에 칠한 페인트는 패로&볼 Farrow&Ball. 카나페와 데다 Dedar 패브릭으로 커버링한 암체어는 베틀시장에서 구입. 낮은 테이블 '벨 커피 테이블 Bell Coffee Table'은 세바스티안 헤르크너 Sebastian Herkner 디자인. 클래식 콘 Classicon(맨 앞). 그 뒤에 있는 테이블은 포스토 Fausto. 태피스트리는 씨씨타피스 CC-Tapis. 플로어 램프 '삼페이 Sampei'는 다비데 그로피 Davide Groppi. 주문 제작한 수납 가구 위에는 테이블 조명 '아톨로 Atollo'(비코 마지스트레티 Vico Magistretti 디자인, 올루체 Oluce)와 꽃병(밀라노의 페넬로페 Penelope), 중국에서 가져온 얼굴 조각상을 올려놓았다.

“비토리오는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역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이 동네를 좋아해요.”



역사에 폭 빠진 비토리오는 밀라노 인기 쇼핑가인 코르소 베르첼리 Corso Vercelli 근처에 있는 이 밀라노 주택의 매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은 19세기 본래 모습을 잘 간직한 동네에 자리한다. 밀라노 주민은 잘 보존된 이 동네를 관광객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장소로 생각한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늘 어딘가 이동 중인 비토리오는 이 집을 비행과 비행 사이에 들러 충전할 수 있는 평화의 안식처로 만들고 싶었다. 건축가 알레시아 가리발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친구였어요. 나는 그가 원하는 것과 생활 방식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함께 조화로운 균형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행에서 얻은 영감과 편안한 세상이 이어지도록 했죠.” 각 방의 메인 컬러는 고요하고 정적인 팔레트에서 가져왔다. 우선 현관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올리브그린 컬러로 정했다. 부드러운 에메랄드 톤의 거실에는 비토리오가 13년간 살았던 상하이를 연상시키는 아시아 감성의 벽지 한 폭을 매치했다. 회색 주방은 호박색을 가미한 가구로 포인트를 주어 ‘밤에 빛나는 달’처럼 꾸몄다. 파란 톤의 욕실은 몸을 편히 이완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다소 정적인 인테리어에 리듬감을 주기 위해 알레시아는 조각품 같은 가구를 매치했다. 현관의 콘솔과 다리가 여러 개인 다이닝룸의 테이블, 그리고 복도의 멋진 조명 설치 작품까지. 비토리오와 알레시아는 감각적인 분위기를 함께 완성했다. ⑦

친구 비토리오의 거실에 있는 건축가 알레시아 가리발디.
오른쪽 페이지 회색 벽과 호박색 가구,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주방은 밤에 빛나는 별을 연상시킨다. 주문 제작한 테이블은
가리발디 아키텍츠 Garibaldi Architects. 의자는 스클럼
Sklum. 유리잔은 리빙 데코 Living Deco. 테이블 조명은 파올로
도나텔로 Paolo Donatello. 펜던트 조명은 다비데 그로피.





조각품 같은 테이블은 주문 제작, 가리발디 아키텍츠.
이 테이블이 식사 공간에 활기를 준다. 빈티지 의자는 프라텔리
레바기 Fratelli Levaggi. 꽃병은 베틀시장에서 구입. 거울은
주문 제작. 사진은 파올라 소시오 Paola Sosio 갤러리. 커튼은
엘리티스 Eli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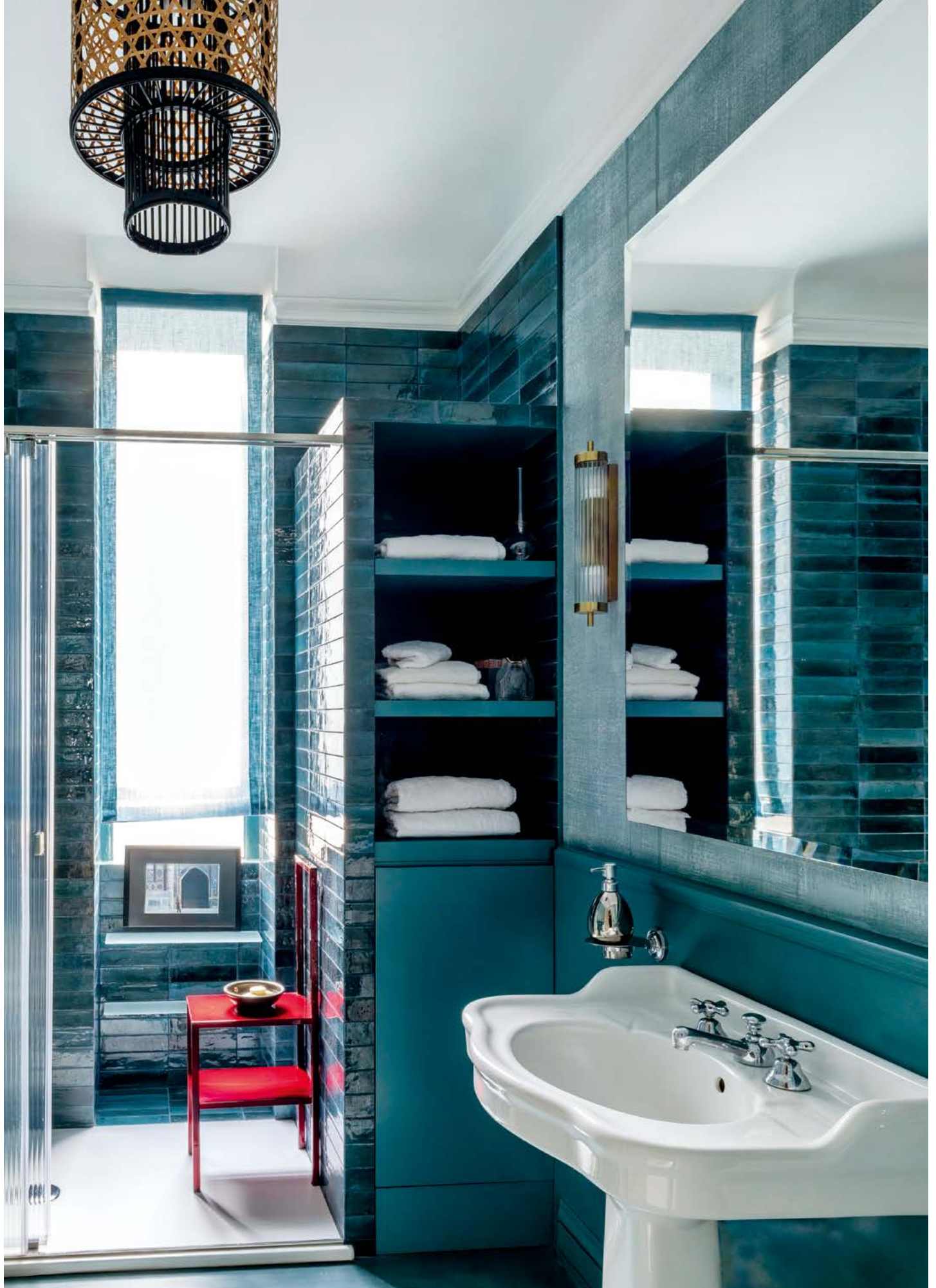


“각각의 방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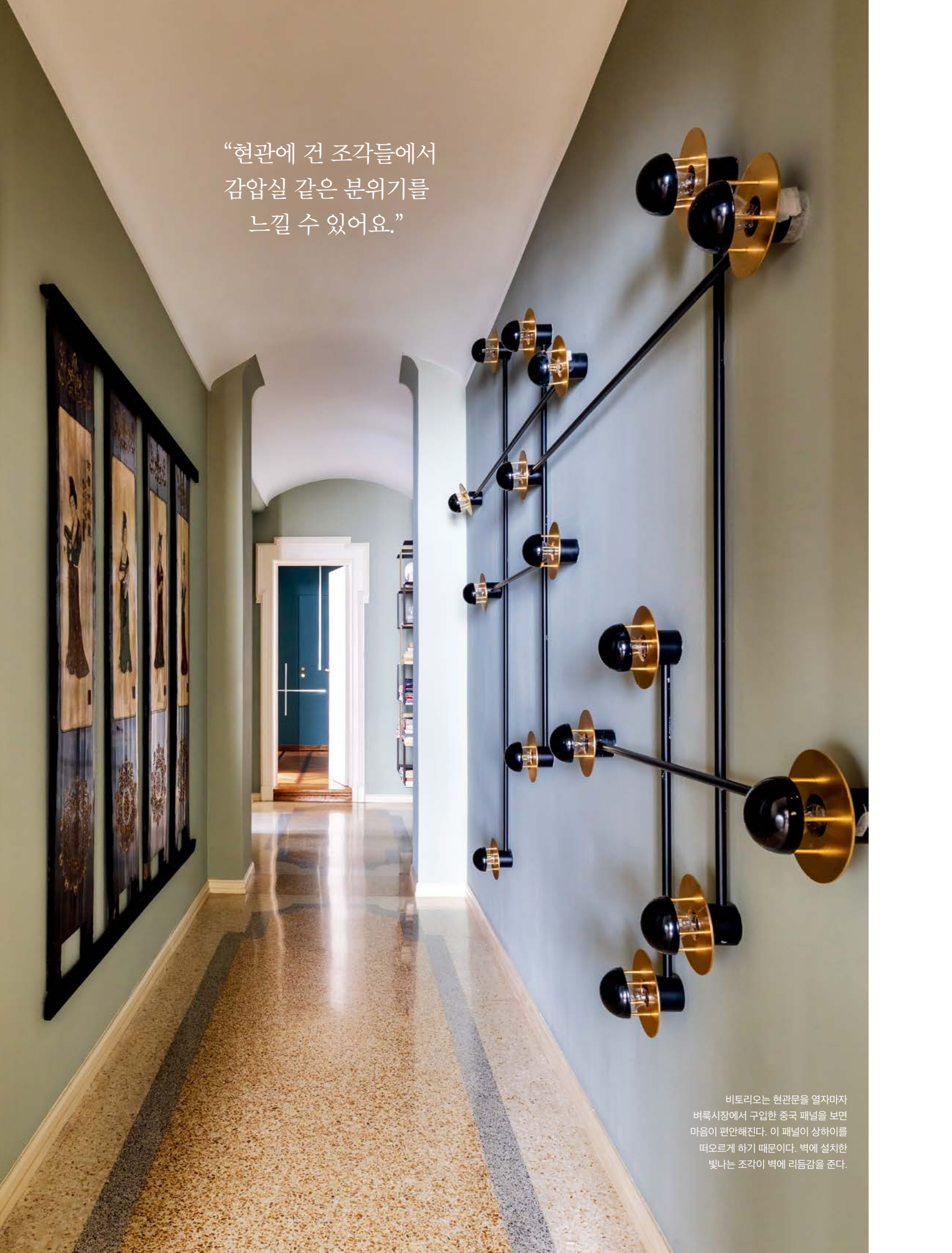
벽에 칠한 녹색 페인트는
패로&볼, 금갈색 헤드보드
'오리가미 Origami'는 피에르
프레이 Pierre Frey. 쿠션은
플루 Flou. 50년대 벽등은
벼룩시장에서 구입. 벽에 건
그림은 파트리자 무사 Patrizia
Mussa(왼쪽), 에도아르도
피에르마테이 Edoardo
piermattei(오른쪽)의 작품.





타일(마라치 Marazzi)과 주문 제작한 벽 장식(오르솔라 폰타나 Orsola Fontana)으로 꾸민 욕실은 단색이다. 바닥은 레진으로 마감했다. 의자(플루)의 빨간색만이 색을 더한다. 세면볼은 빈티지, 수전은 스텔라 Stella. 펜던트 조명과 벽등 '메르카티노 Mercatino'는 밀라노의 페넬로페.

“현관에 건 조각들에서
감압실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비토리오는 현관을 열자마자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중국 패널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패널이 상하이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벽에 설치한
빛나는 조각이 벽에 리듬감을 준다.